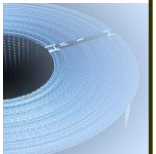


2008. 1. 8

POSRI CEO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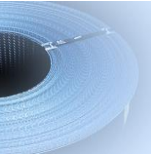
2008 년에 주목해야 할 철강 이슈



철강연구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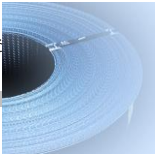
탁승문, 허진석, 이금용, 김정수, 이상학

Executive Summary



<2008년에 주목해야 할 철강 이슈>

- 2008년 세계 철강산업은 수요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쟁 환경이 매우 엄격해질 전망이다. 따라서 2008년은 각종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
 - 철강 원료가격의 초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광산 개발에 대한 신규투자 증가 및 원료 보유국 철강사와 미보유 철강사 간의 수익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원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
 -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부펀드가 전략적 투자의 대안으로 자원·철강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도 주시할 필요
 -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포스트-교토체제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국내외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 예상
 - 주요 철강사들이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대형 철강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자동차 강판의 글로벌 생산·판매 네트워크 경쟁이 가열되는 등 시장확보 경쟁이 격화될 전망
 - 중국의 생산 및 수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판재류 공급과잉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발 통상마찰이 세계로 확산될 우려
 - 국내 시장에서의 제품별 수급 불균형 심화로 후판과 열연코일의 경우 공급부족이 확대되는 반면, 냉연류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상대적 가격 약세 가능성
 - 세계 스테인리스 시장 부진에 따라 채산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업계의 경쟁구조 재편 가능성 증대
 - 최근 철강가격 급변과 거래소의 선점경쟁으로 철강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, NYMEX와 LME에서 철강선물 본격 거래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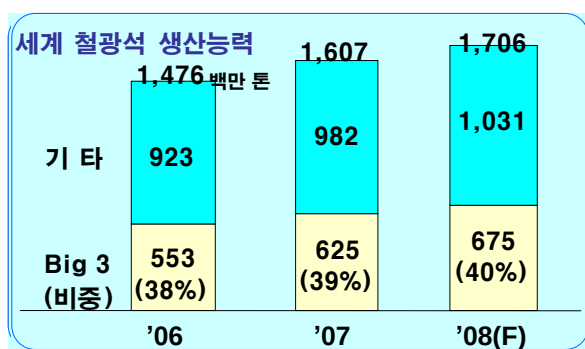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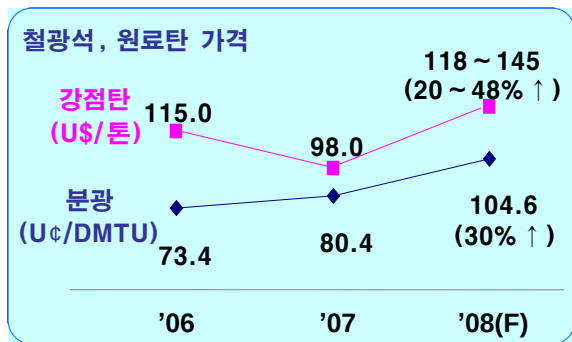
목 차

1. 원료가격 초강세 下 신규광산 개발 활발	1
2. 철강업계 수익성 양극화 심화	2
3. 국부펀드의 투자 다변화 가속	3
4. 포스트-교토체제 협상 본격화	4
5. 신흥시장 선점 위한 대형 철강 프로젝트 추진	4
6. 자동차 강판 글로벌 생산·판매 네트워킹 경쟁 가열 ...	5
7. 중국, 생산·수출 억제정책 불구 판재류 공급 과잉 확대 ·6	
8. 국내 시장, 제품별 수급 불균형 심화	7
9. 세계 스테인리스 업계의 구조개편 압력 증대	7
10. 철강선물 거래 본격 시작	8

1. 원료가격 초강세 下 신규광산 개발 활발

□ 철광석과 원료탄, 30% 내외의 대폭적인 가격 상승 예상

- 수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해상운임 급상승 등으로 spot 시장 가격이 대폭 상승
 - 중국, 철광석 수입가(spot 시장, 도착도 가격 기준): 톤당 82달러 ('07년 1월) → 210달러 ('07년 11월)
- 주요 원료 공급사들이 2008년 계약가격에 대해 spot 가격 수준으로의 인상을 요구



□ 신규 투자가 증가하여 세계 철광석 생산능력은 17억 톤으로 확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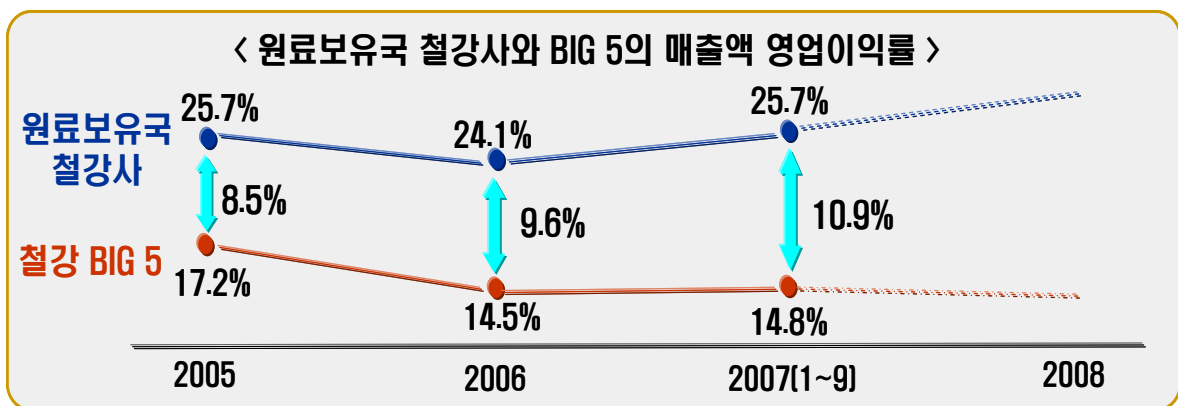
- 철광석 Big 3의 능력 증가 주도 속에 CIS, 아프리카 등 신흥 지역에 대한 투자 급증 예상
- 세계 주요 철강사들(A-Mittal, Tata, Evraz 등)도 원료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, 중국 정부는 해외 광산에 대한 중국 철강사의 직접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며, 일본도 종합상사와 공동으로 철강원료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료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

□ 원료 공급능력 확대 노력으로 원료 가격은 2008년 피크를 보인 후, 2009년부터는 소폭의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

2. 철강업계 수익성 양극화 심화

□ 원료가격의 초강세로 원료보유국 철강사와 미보유 철강사 간의 수익성 양극화 현상 심화

- 원료보유국 10개 철강사와 Big 5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5년 8.5%에서 2007년 9월 누적기준 10.9%로 벌어졌고, 2008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



주: 원료 보유국 철강사는 NLMK, Severstal, SAIL, CSN 등 10개사, Big 5는 A-Mittal, 신일철, JFE, POSCO, 보강

□ 원료 보유국 철강사들은 고수익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해외진출 추진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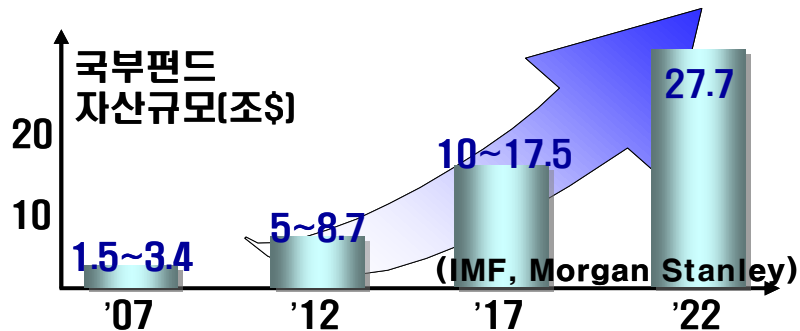
- Evraz, Gerdau 등이 M&A 주도세력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성장지역에서의 제철소 건설도 병행 추진할 전망
- A-Mittal의 원료회사 및 원료보유 철강사에 대한 M&A 추진 본격화 예상

□ 원료 미보유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원가절감 성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

3. 국부펀드의 투자 다변화 가속

□ 원자재 수출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부 펀드는 현재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이 활동 중, 향후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

- 2007년 9월에 설립된 중국투자공사의 자금운용 방향에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도 금년 중 가세할 예정
- 향후 국부펀드는 금융과 실물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전망



□ 최근 설립된 국부펀드는 과거의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전략적 투자로 진화

- 과거 중동 오일머니 중심으로 형성된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고수익과 위험분산을 추구
- 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부펀드는 수익성 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적 동기를 우선시함에 따라 전자, 통신, 방위산업 등으로 투자 분야를 다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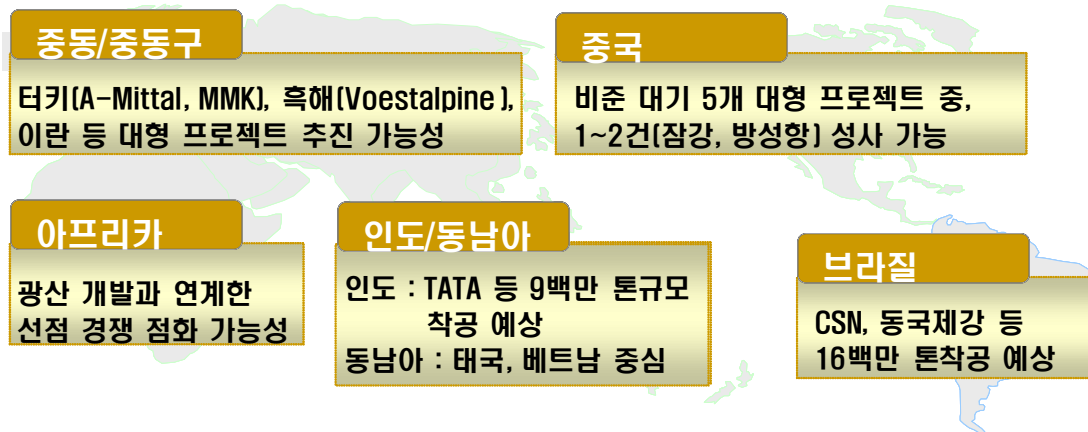
□ 향후 자원이나 철강 분야로의 투자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

4. 포스트-교토체제 협상 본격화

- 2007년은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
 - 3개 채널(아·태파트너십, UN차원, 산업섹터제)을 통해 나라별 논의와 함께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 노력 확산
 -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각국 간 대립과 첨예한 이견이 상존
- 2008년은 포스트-교토체제 협상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
 - 각국 비준을 위한 3년의 소요기간 고려 시 2009년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함. 이를 위해 금년 중 핵심 쟁점들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외 협상이 필수
 - 한국 정부도 금년 중에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저감 잠재량 및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
- 실리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고 탄소경제 주도권 경쟁이 시작될 전망

5. 신흥시장 선점 위한 대형 철강 프로젝트 추진

- 주요 철강사들은 2008년을 신흥 성장시장에서의 투자기회 선점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어 대형 프로젝트의 활발한 추진 전망
 - 중국은 비준 대기 중인 5개 대형 프로젝트 중 1~2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, 브라질은 CSN 등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착공 규모가 1,600만 톤에 달할 전망
 - 중동과 중동구 지역에서도 A-Mittal, MMK, Voestalpine 등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, 아프리카에서는 광산개발과 연계한 선점경쟁의 점화 예상



-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지역이 BRICs 전역과 중동, 동남아, 아프리카 등지로 다변화되면서 신흥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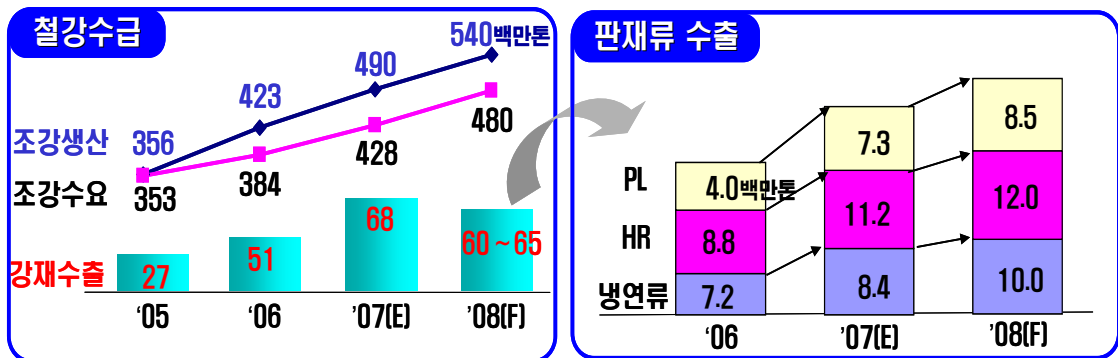
6. 자동차 강판 글로벌 생산·판매 네트워크 경쟁 가열

- 메이저 철강사들은 신흥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강판 거점 확충 경쟁을 전개
 - 신일철은 2010년까지 해외 5대 거점(중국, 북미, 브라질, 인도, 태국)에서 자동차 강판 6백만 톤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신증설 투자를 본격화할 전망
 - A-Mittal, JFE, TKS 등도 설비확장 경쟁에 동참할 것이며, 중국의 대형 밀과 Severstal 등 기타 중견 밀들도 적극 가세할 전망
- 주요 철강사들은 경쟁전략 뿐만 아니라 제휴전략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예상

7. 중국, 생산·수출 억제정책 불구 판재류 공급 과잉 확대

- 중국 정부는 2008년 조강생산을 2007년 대비 10% 증가한 5억 4천만 톤 수준으로 억제함으로써 원료가격 강세에 대응하고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

○ 수출규제 강화로 2008년 철강 수출량은 6천~6천 5백만 톤 수준으로 다소 감소할 가능성



자료: CISA ('07.12), POSRI

- 그러나 조비전, 영구 등 신규 일관밀의 잇따른 가동 등으로 판재류 능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판재류 수출 대상량도 크게 확대될 전망

○ 수급이 타이트한 후판은 고가로 수출하는 한편,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냉연류는 저가로 수출하는 등 수출가격의 차별화 현상 발생 가능

- 결과적으로 중국발 철강 통상마찰이 세계로 확산될 우려 속에 선진국의 수입규제 및 높은 물류비 부담 등으로 근거리 지역으로의 수출 압력 증대 예상

8. 국내 시장, 제품별 수급 불균형 심화

- 후판은 공급부족이 심화돼 가격이 초강세를 보일 것이며, 열연코일의 경우도 차공정용 수요의 증가세로 공급부족이 확대될 전망
 - 냉연류는 공급과잉이 심화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
- 2008년 하반기 이후, 고철 수급의 불균형 심화로 조달 애로 예상
 - 국내 전기로 업체의 신증설 및 휴지 설비 재가동 러시(대한제강 70만 톤, 한국특수형강 80만 톤, 현대제철 일부 전기로 재가동 등)로 2008년 고철 추가 소요량 160만 톤 이상 예상

9. 세계 스테인리스 업계의 구조개편 압력 증대

- 세계 스테인리스 시황 부진에 따른 업계의 채산성 압박은 스테인리스 산업의 재편(대형화, 통합화)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.
 - 원료업계 및 고객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고, 과잉투자로 초과공급 또한 심화될 것으로 우려
- 중국, 과잉능력이 2007년 77만 톤에서 2008년에 167만 톤 그리고 2009년에는 더욱 확대된 202만 톤으로 전망되어, 경쟁력 및 수익성이 취약한 중소·중견 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가시화 가능성
 - 유럽에서도 Big 4 체제의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, 인도가 Jindal을 중심으로 스테인리스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예상

10. 철강선물 거래 본격 시작

□ 최근 철강가격 급변과 거래소의 선점경쟁으로 철강선물에 대한 관심 증가

- 2007년 10월부터 두바이 상품거래소에서 철근 선물이 거래를 시작했고, 2008년 1분기 중에는 NYMEX에서 열연코일이, 4월에는 LME에서 빌릿 선물이 거래될 예정
- 거래 초기에는 운영 수입을 추구하는 거래소가 대표성을 알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어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나, 대형 철강사 등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거래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□ 철강선물이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, 철강산업에 미치는 잠재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의 전개방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- 제품 규격과 품질의 비표준화 등 철강산업의 특성 상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제약 요인들이 많아, 과거 영국, 중국, 인도,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한 경험 이 있음.

탁승문 연구조정위원 (Tel. 02-3457-8227, e-mail: smtak@posri.re.kr)
허진석 수석연구위원 (Tel. 02-3457-8073, e-mail: jshuh@posri.re.kr)
이금용 수석연구위원 (Tel. 02-3457-8076, e-mail: kylee@posri.re.kr)
김정수 연구위원 (Tel. 02-3457-8173, e-mail: ninebean@posri.re.kr)
이상학 연구위원 (Tel. 02-3457-8169, e-mail: shlee@posri.re.kr)